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공동체

경영학과 이상구

아시아 공동체론을 수강하게 된 것은 이미 수강한 학우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의 말과 강의계획서를 통해 수업에 대해 사전조사를 한 결과, 다양한 교수나 강사님들이 각기 다른 주제로 각자의 관점을 갖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한편으론 생소하면서도 한편으론 흥미를 유발하였다. 매주 1번의 수업에 연강을 하는 방식이었지만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게 되어서 연강에 대한 부담은 없었으며 오히려 수업을 들으면서 갖게 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준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또 교수님이나 강사분들의 강의도 무척 좋았으며 주한 일본대사관,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스타일이나 내용을 통해 그 국가의 특징을 어느 정도 엿볼 수도 있었다. 아시아 공동체론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였던 ‘아시아 공동체는 필요한가, 형성될 수 있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학습과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다.

위 질문을 해소할 수 도록 각 강의를 관련 배경지식을 제공해주었다. 이왕희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아시아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아시아는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에서 피지배자의 위치에 있었고 경제발전이 더뎠으며 아시아 국가간에도 침탈과 지배의 역사가 얹혀 있어 아시아라는 공동체 의식이 발전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 의식의 형성이 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일 것이다. 김용기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서도 동남아시아의 발전 역사 그 중에서도 ASEAN에 대해서 학습하였는데, ASEAN은 그 나름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그들만의 자급자족적인 경제구조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3국인 한국, 중국, 일본 중심의 가치사슬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한,중,일 3국의 주도하에 아시아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한중일은 정치적, 역사적, 안보적으로 복잡하게 얹혀 있을 뿐 아니라 이 3국외에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6개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호협력은 요원하게만 느껴지기도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아시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요건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 11월에 열린 컨퍼런스에서 교수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토론과정을 지켜보며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대체로 중일관계의 발전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것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교수님들 간에 의견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된 생각은 국제관계에서는 양자간의 관계 그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양자 간의 관계가 다른 주변국가에까지 영향을 주며 다자 간의 이해관계가 다시 양자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아시아 공동체라는 다자 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정리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먼저 아시아 공동체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적어도 우리나라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브렉시트, 미중무역분쟁 등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창궐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통상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이므로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예컨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가치사슬구조를 가진 공동체가 필요하며 아시아가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라 본다.

아시아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각 국가간에 민간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는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역사문제가 각 국가의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고 각 정치권이 이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여 협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정권유지보다 더 큰 실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향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며 국제관계나 역사, 이주현황 등 관련 지식들을 잘 쌓을 수 있었고 이런 지식과 관점들이 국제 뉴스나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데에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졸업을 앞두고 전공과목을 더 듣는 것이 부담되기도 하였지만 듣고 난 후에는 오히려 듣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취업 과정에서도 취업 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좋은 강의를 열어주신 박성빈 교수님과 강의 해주신 교수님들, 강사님들께 감사드린다.